

광주 중·고생 2명 코로나19 최종 '음성' 오락가락 판정 학교·지역사회 큰 혼란

질병 양성 판정 뒤 네차례 음성
양성판정 원검체 오염 가능성
교육현장·학부모 등
느슨한 방역의식 개선 의견도



전교생 검사 지난 12일 오후 광주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1명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됐다. 남구청 보건소 담당자들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방역당국이 민간기관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대학병원 등 전문기관에서 네 차례나 음성판정을 받은 광주지역 중·고교생 2명의 최종 확진 여부를 놓고 나흘이나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빚었다.

이번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질본의 과도한 '책임 회피성' 조치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왔다. 결국 최종 음성으로 판정되기는 했지만 방역당국이 주말·휴일 내내 양성과 음성판정을 오가는 사이 광주시민은 물론 지역 교육계 등에서 일상생활 재개와 등교 여부 등을 놓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관련기사 3, 6면>

다만,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교육 현장과 학부모 등의 느슨한 방역 의식과 시스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4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감염의심자(유덕중 1학년 A군과 대광여고 2학년 B양) 2명이 이날 0시 기준 각각 광주 33번, 34번 확진자로 질병관리본부(질본) 시스템에 등록됐다"면서 "학생들이 입원 중인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에서도 증상이 없고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검사한 결과도 모두 음성이었기 때문에 퇴원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다만 기자회견 말미에 "일단 오늘 질본 발표를 보면 2명을(확진자로) 넣지는 않았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광주시 자체적으로는 확진자 분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광주시는 이날 브리핑 이후 다시 수검 보도자료를 내고 "질본이 첫 양성 판정 후 4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결과가 나온 것

에 대해 이례적 사례로 보고, 현재 그 원인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며 "광주시는 재검사 결과인 음성 판정을 신뢰하고 있으며, 다만 방역 조치는 확진자에 준해 빈틈 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시민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오전 브리핑 내용을 정정했다.

하지만 질본은 이날 오후 6시 이틀 학생 2명에 대해 '가짜양성(음성)'으로 최종판단했다. 결국 하룻새 감염 의심자 2명이 확진자가 됐다가 다시 감염 의심자로 바뀐데 이어 또다시 음성으로 최종 판정된 셈이다. 광주시는 질본의 최종 음성판정에 따라 A군과 B양을 즉시 병원에서 퇴원 조치하고, 자가격리중인 117명에 대해서도 격리를 해제했다. 또 유덕중과 대광여고도 15일부터 정상 등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덕중 1학년 A군과 대광여고 2학년 B

양은 지난 11일 첫 번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대학병원이 진단한 4차례의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군과 B양은 최근 수도권 방문이나 해외여행 사실이 없으며 방문·여행자와 접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그동안 모범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온 광주시는 확진에 준하는 대응을 했다. 시는 지난 11일 유덕중 1학년 A군 관련 학생과 교직원 407명을 포함한 419명, 대광여고 2학년 B양 관련 학생·교직원 668명을 포함한 699명을 검사했으며,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들 1118명 중 117명은 밀접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 당국의 허술한 방역 시스템이 드러나기도 했다. A군은 지난 8일 첫 등교 후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학교 보건실을

방문했지만, 학교측은 선별진료소 인계 지침을 지키지 않고 A군을 조퇴 귀가토록 했다. A군은 이후 검사 전까지 4일간 집에 머물렀다. A군이 양성이었다면 자칫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할 뻔 한 것이다.

한 교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선 무조건 선별진료소로 학생을 보내야 한다"며 "개학과 동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부모 동의서도 모두 받아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기온이 올라가고 2개월 이상 광주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없자,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이 많아지고 다중 모임이나 행사에서도 방역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북한 군부, 무력도발 나서나

대미 SLBM 도발 관측
정부, 대북 메시지 관리 주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공개적으로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 북한군의 무력시위가 압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간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던 정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북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군과 전문가들은 14일, 김 제1부부장의 전날 밤 담화가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이전과 다르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말지 않아 쓸모없는 북한(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태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스리나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군 총참모부에 대남 군사행동을 지시했다.

당장 우려스러운 건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고사포 조준사격 등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화력 도발이다. 김 제1부부장이 대남 비난에 나서며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도 대북전단 문제였다.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에도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언론을 통해 이미 예고한 상황이라서, 실제 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북한은 즉각 행동 개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4년 10월 북한군이 대북전단을 향해 쏜 고사포탄이 경기 연천 인근 민통선에 떨어지기도 했다.

'한반도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NLL 일대에서는 남북한의 화력이 집중된 데다 군사적 충돌이 자주 발생했다.

실각에서는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힘을 키우겠다고 공언한 점을 비춰볼 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미국을 겨냥한 전략무기 도발 카드도 염두에 둘 것인만큼 전망도 제시하고 있다.

심각하지 않은 분위기에 그간 북한의 대남 비난에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던 군 당국도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제1부부장 담화가 나온 직후 14일 새벽 정의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NSC 고경 멤버가 아닌 박한기 합참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오전 통일부가 먼저 '합의 준수' 기조를 재확인했고, 이어 국방부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별도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

범여권 173명,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평화협정' 체결 논의 촉구도

범여권 의원 173명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함과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한

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이낙연 실훈 김한정 김홍걸 등 민주당 의원 168명과 정의당 배진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진에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73명이 참여했다.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Mercedes-Benz Certified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2개 전시장 보유
- 6년/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증대
- 국내 최초 세계적인 품질 평가기관 TÜV 검수 및 인증 완료
- 1년/2만km 무상 보증 수리 프로그램 (1년/2만km 선드래 적용)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